

‘김광석 거리’처럼…광주에 ‘김정호 거리’ 조성

하얀나비 등 히트곡 50편 7080 품미…33세 폐결핵 요절

내달까지 수창초에 동상·북동성당 인근 300m 거리 조성

영국의 평범한 항구도시였던 리버풀은 ‘비틀즈’가 세계적 인기를 얻으면서 문화 도시로 발전했다. 지난 2010년 대구시는 가수 김광석이 태어난 동네(중구 대봉동)에 벽화 등으로 꾸민 ‘김광석 거리’를 만들어 전국민이 찾는 명소로 부상시켰다. 광주에서도 노래 ‘하얀나비’를 부른 가수 고 (故) 김정호(본명 조용호·1952~1985)의 음악적 자산을 활용한 도심 활성화 사업이 추진된다.

광주시 북구는 “수창초등학교 인근(북동 93-1번지 일원)에 ‘하얀나비’, ‘이름 모를 소녀’ 등 가장 한국적인 포크를 구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가수 김정호를 추모하는 ‘하얀나비’ 김정호 동상 조성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도시재생 사업의 하나로 북구 중앙동 주민들이 참여하고 있는 2017 생생

프로젝트 선정사업(‘시간이 멈춘 마을, 추억과 함께 되살아나는 북동골목’)과 연계해 추진한다. 김정호 모교인 수창초교 인근에 총 예산 4400만원을 투입해 11월 중순까지 김정호 동상, 조형물 등으로 구성된 74㎡ 규모 동산을 만들 예정이다.

김정호 동산은 3m 크기 화강암으로 만든 기다란 벤치를 놓고, 기타를 들고 노래하는 생생 모습을 실물 크기로 제작한 김정호 청동상을 설치한다. 방문객들이 김정호 동상 옆에 앉아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이다. 동상 뒤편에는 음표를 형상화한 하얀나비 조형물을 설치해 볼거리를 더한다.

바다도 이색적으로 꾸민다. 읍포 형상으로 보도블록을 깔고 소나무 등 조경목을 식재할 예정이다. 야간 경관을 조성하기 위해 태양광 조명 시스템 등을 설치하



김정호

고 바닥에는 하얀나비 노랫말을 새겨 넣어 김정호를 추모한다.

중앙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지난달 2일 삼각동 가작어린이공원을 시작으로 9월부터 11월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김정호

노래부르기, 통기타 연주 등 작은 추모음악회를 개최하고 있다.

북구는 동산 조성을 시작으로 김정호 생가터가 있다고 알려진 북동성당 인근까지 거리(300여m)를 ‘김정호거리’로 조성할 계획이다. 대구 ‘김광석 거리’처럼 김정호를 활용한 콘텐츠로 구도심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북구는 기대하고 있다.

33살에 폐결핵으로 요절해 ‘비운의 천재가수’로 불리는 김정호는 ‘하얀나비’, ‘작은새’ 등 히트곡 50여편을 발표하며 1970~80년대를 풍미했다. 작고 이듬해인 1986년 한국 가요대상 최초로 송창식, 윤형주, 김현식 등이 참여한 추모앨범이 만들어지기도 했으며 현재까지도 추모행사가 이어지고 있다. (사)대한가수협회 광주지회회는 지난 2015년부터 매년 수창초등학교에서 ‘김정호 추모음악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김정호의 외가가 있는 담양군도 지난 2015년 메타세쿼이아 길에 김정호 노래비를 제막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충장축제 다음주 개막합니다”

‘추억의 충장축제’를 앞두고 10일 광주 동구 금남로에 축제를 상징하는 등불이 설치되고 있다. 행사는 오는 18일 개막해 22일까지 금남로, 예술의 거리 등지에서 열린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전남 초등 교원 미달사태 면했다

경쟁률 1.05대 1~5명 뽑는 광주 8.6대 1 전국 최고

해마다 미달사태를 빚었던 전남 초등교원 경쟁률이 1.05대 1을 기록했다. 5명을 뽑는 광주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경쟁률(8.6대 1)을 기록했다.

광주시교육청은 5명을 뽑는 2018학년도 초등교사 임용시험에 모두 43명이 도전장을 내 경쟁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8.6대 1을 기록했다고 10일 밝혔다. 전남은

414명 선발에 모두 433명이 원서를 내 1.05대 1을 기록했다. 전남은 지난해 342명 모집에 245명이 지원해 미달됐었다.

이날 각 교육청에 따르면 360명(장애인교사 구분 선발 제외)을 뽑는 2018학년도 서울 초등교사 임용시험에 1038명이 지원해 2.8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2017학년도(2.23대 1)에 견줘 경쟁률이 올랐다.

가장 많은 교사를 뽑는 경기는 919명(장애인·지역 구분 선발 제외) 선발에 1808명이 지원해 경쟁률이 1.97대 1을 기록했다. 인천은 70명 선발에 151명이 지원, 경쟁률이 2.1대 1이었다. 강원은 298명을 뽑는데 325명이 지원해 1.0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충북(1.15대 1)과 충남(1.15대 1), 경북(1.16대 1), 경남(1.40대 1)도 올해는 선발 인원을 웃돌았다.

부산은 2.36대 1, 대구는 2.65대 1, 대전은 3.23대 1, 세종은 3.56대 1, 울산은 2.00대 1, 제주는 2.3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붉은불개미 美 개체군과 동일”

정부 브리핑…추가 발견 없어

부산항 감만부두에서 발견된 외래 붉은불개미가 미국에 분포하는 개체군과 동일한 유형으로 추정된다는 역학조사 결과가 나왔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10일 브리핑을 열고 지난달 28일 발견된 붉은불개미에 대한 유전자 분석 결과, 미국에 분포하는 붉은불개미 개체군과 동일한 모계(母系)의 유전자형을 가진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오늘의 날씨

해돋이 06:35
해질녘 18:03

달출몰 22:37
달지름 12:08

기온 '뚝'

대체로 흐리고 아침에는 비가 오겠다.

◇지역별 날씨 (℃)

광주	주 가뭄	고리	고비	18/21	보	성	하림	17/21
목	포	하림	19/21	순	천	하림	20/24	
여	수	하림	20/25	영	광	가뭄	고리	18/20
나	주	하림	18/20	진	도	하림	19/21	
완	도	하림	20/23	전	주	가뭄	고리	18/20
구	래	하림	18/21	군	산	가뭄	고리	17/20
강	진	하림	19/23	남	원	가뭄	고리	18/20
해	남	하림	19/22	흑	산	하림	17/19	
장	성	가뭄	고리	16/20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앞바다	서~북서	0.5~1.5	북서~북	1.0~2.0
남부	면바다	서~북서	1.0~2.5	북서~북	1.5~3.0
	앞바다	서~북서	0.5	북서~북	0.5~1.0
남해	면바다(동)	서~북서	0.5~1.0	북서~북	1.0~2.0
서부	면바다(서)	남~남서	0.5~1.5	북서~북	1.0~2.0

◇생활지수

	관심
	보통
	보통
	파부질한

◇물때

	간조	만조
목포	10:51	05:48
	23:32	18:33
여수	06:17	00:10
	19:00	12:58

◇주간 날씨

12(목)	13(금)	14(토)	15(일)	16(월)	17(화)	18(수)
14/15	10/20	11/21	12/22	12/22	12/22	21/22

“朴정부 공작에 강진 문익환학교 지원 탈락”

시·도 평가 1위에도 누락

전재수 의원 의혹 제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재수(부산 북·강서구 갑) 의원은 10일 대한학교인 ‘늦봄문익환학교’가 2012년 교육부의 학업중단학생 교육지원사업에서 탈락한 것은 정권 차원의 조직적 공작 때문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전 의원은 이날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비인가 대한학교를 지원하는 학업중단학생 교육지원사업에서 강진군에 있는 늦봄문익환학교(늦봄학교)는 전국 시·도별 평가에서 1위를 했다.

하지만 늦봄학교는 교육부(당시 교육과학기술부)의 심사·조정에서 탈락했다. 17개 시·도별 평가에서 1위를 한 학교가 교육부 심사·조정에서 탈락한 곳은 전남과 제주 단 두 곳이다. 교육부는 당시 늦봄학교의 탈락 사유에 대해 제주 강정마을 현장학습과 북한에서 전달한 축사를 졸업식에서 낭독하는 등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 것을 들었다.

전 의원은 “강정마을 현장학습은 다른 학교도 시행했고 북한에서 전달한 축사는 통일부에서 공식적으로 전달받은 축사로 확인됐다”며 “정치적 의도에 따라 조직적 공작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li@

국내외 석학들 광주서 ‘노화심포지엄’

13·14일 DJ센터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모색하기 위한 대규모 국제학술행사가 광주에서 열린다.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노인의학센터(센터장 윤경철 전남대병원 안과 교수)는 “오는 13~14일 이틀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10여 곳의 학회·협회 및 연구소와 함께 제11차 국제노화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스마트 에이징(smart aging)’을 주

제로 열리는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세계적 권위의 국내·외 석학들과 학계·의료계·산업계의 실무자 등 200여명이 참여해 다양한 정보교류와 열린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심포지엄 첫째 날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노인정책, 스마트 에이징을 위한 건강 상식 등이 다뤄지며, 둘째 날은 미국과 유럽의 노인관련 연구들을 비롯한 스마트 브레인·바디·폴리시 등을 주제로 전문가의 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박진표기자 lucky@

www.aroma-life.co.kr

‘건강’과 ‘아름다움’을 모두 잡은

맛춤형 기능성 속옷의 명가

아로마라이프

- 한국, 미국, 일본, 중국에서 특허받은 유니크한 디자인
- 편안한 착용감과 생리적인 불편함을 해결한 제품
- 도레이社 LYCRA 를 사용 (별단면육각형)
- 특수 물질가공(원적외선, 음이온 방출)

(주)아로마라이프 상담 및 문의 1588-2219

아모리온
브라+슈트+거들
한국 특허 3단 일체형 슈트

아모리온 롱바디
브라+슈트+거들+레깅스
4개국 특허 4단 일체형 슈트

아실리바디슈트
블랙은사 바디슈트의
은사 레이스 품평회 1등

비비드아모르
러닝+팬츠 일체형
남성용 슈트